

# “생활비 충당”... 고물가에 부업 뛰는 직장인 는다

물가상승에 실질임금 줄어 '경제난' 작년 부업 취업자 5년새 52% 증가 광주·전남 월평균임금 전국 하위권 “경기 회복돼야 서민 숨통 트일 것”

광주 남구에 거주 중인 박모(30)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블로그 원고를 작성한 지 3년이 넘었다. 박씨가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은 약 30만원. 글자수(1200·1500자) 당 고료가 각각 3500·5000원인 원고를 일주일에 20개 이상 작성해 이 같은 부수입을 얻는다. 원고 하나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5~30분으로, 1시간에 2~4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주 최소 6시간 이상을 부업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여가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업 활동이지만 박씨는 30만원가량의 부수입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월 200만원 초반의 월급으로는 제대로 된 저축을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해 연봉이 이미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했고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급여가 동결됐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니 힘들어도 부업을 포기할 수가 없다”며 “한 달에 최소 100만원 이상은 모아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월급에서 월세·식비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겨우 70여만 원이 남는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7% 인상된 가운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실질소득이 줄어들자 본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진 직장인들이 부업에 뛰어들었다. 광주·전남지역 상용 월평균 임금 상승률 역시 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을 시름케 하고 있다.

1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분기 부업자 수가 44만5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1.91% 증가한 수치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시스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다.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지난해 4월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61.9%를 차지했으며 ‘창업·이직 준비’, ‘본업 역량 강화’ 등의 이유(36.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선택하는 취업자 수가 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부업을 해도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업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데다가,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N잡리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일자리만 갖고 있

는 사람보다 21만원 많은 수준이지만, 총근로 시간을 감안해 N잡리의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보면 1만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6000원)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 대비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로, 직전 전망(2.1%)보다 0.3%p 낮아졌음에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22년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5.1·5.7% 상승했지만, 해당 기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기준 광주시 상용 월평균 임금(328만4566원)은 전년 대비 4.6% 상승했으며, 6개 광역시 중 대구시 다음으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았다. 전남은 344만5263원으로 임금상승률은 2.8%에 그쳤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가 지난 2020년(100.00)부터 2024년(115.03)까지 15.03% 상승하는 동안, 상용 월평균 임금은 325만2923원에서 365만8375원으로 12.46% 상승하는 등 연간 월평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4.57% 증가한 반면, 월평균 임금은 17.38%(298만9188원→350만8824원) 상승하는 등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광주시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6개 광역시 중 대구시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17개 시도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낮았다. 전남지역 월평균 임금 역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낮았다.

박씨는 “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뼈뺀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고물가에 이전보다 오히려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언제 갑자기 오를지 모르는 식품비 등이 가장 큰 부담이다”며 “고물가 및 경기 침체 회복이 우선돼야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중소조선연구원,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 추진

조선소-협력사 연결화 등 과제 현장 맞춤형 솔루션 집중 지원

중소조선연구원이 대형 조선소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본격 추진한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마트 생산기술의 보급을 통해 중

소 조선업체의 생산성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남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조선소 및 사외협력사 등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스마트·자동화 기반의 생산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건의 과제를 선정한다. 먼저 ‘조선소-협력

사 연결화’ 분야에서 4건을 선정해 조선소와 사외협력사 간 설계·생산·품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협업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화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외협력사는 대형·중견·중소 조선소와 함께 CAD 정보, 생산계획, 생산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20건을 선정해 자동화·연결화·지능화 기술

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가공, 용접, 도장, 검사 등 기존에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자동화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고,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기 위해 IoT·스마트 센서·디지털 트윈 기반 3D 가상화 기술 등을 활용하고, 조선소와 사내협력사가 동시에 공정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연결화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 분석,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지능형 생산 시스템

을 도입함으로써 공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조선소-협력사 연결화’ 분야는 최대 2억원, ‘디지털전환’ 분야 중 자동화 기술은 최대 1억2000만원, 연결화 기술은 최대 1억3000만원, 지능화 기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3일까지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rims.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신세계, 올해의 컬러 ‘모카무스’ 신상품 선배

밤·초콜릿 연상 부드러운 색상 17일부터 본관지하1층서 행사

광주신세계가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모카무스(Mocha Mousse)’를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글로벌 색채 연구소인 ‘팬톤’이 경기 침체 속 위로를 담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모카무스는 단순한 브라운 컬러를 넘어 밤, 초콜릿, 커피 등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감도있는 컬러다.

광주신세계는 세련되고 화려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 모카무스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여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먼저 본관 5층에 자리잡은 ‘샌드베이지’는 절제된 실루엣으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모로코의 고대 도시 ‘마라케시’의 모래에서 영감을 받은 샌드베이지는 탄탄한 소재와 감도있는 디자인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샌드베이지에서는 자켓부터 상하의까지 모카무스 색상의 아이템들을 선보여 주력으로 선보이는 베이지 컬러의 아이템들과 함께 톤온톤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인기가.



광주신세계가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모카무스(Mocha Mousse)’를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럭키슈에프’는 브랜드 특유의 경쾌하고 유니크한 감성과 모카무스의 조화로운을 엮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럭키슈에프에서는 일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청자켓에 모카무스 컬러의 가죽 패치를 넣은 아이템과 모카무스 컬러의 코듀로이 소재의 자켓도 함께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신세계는 모카무스 컬러의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

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7일부터 본관 지하 1층에서 ‘제너럴 아이디어’, ‘매그제이’, ‘비터셀즈’ 등 신규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S/S 특집전을 연다. 이번 특집전은 오픈 후 첫 행사로 다양한 모카무스를 활용한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슈즈미스, 리스트, 시스티나 등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브랜드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룹전도 진행한다. 나다운 기자

## 기아, 첫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 계약 개시

기아는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사진)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3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10월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한 정통 픽업 타스만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국내 픽업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타스만의 트림명을 강인하고 역동적인 픽업 특성을 고려해 다이내믹·어드벤처·익스트림으로 구분했으며,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 모델을 별도로 운영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타스만의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이며 특화 모델인 X-Pro는 5240만원이다.

기아는 타스만에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 토크 43.0 kgf·m의 동력성과 8.6km/l의 복합연비(기본 모델 17인치 휠 2WD, 빌트인캠

미적용 기준)를 확보했다. 또한 타스만은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towing) 성능을 갖췄으며 견인 중량에 따라 변속패턴을 차별화하는 투우(tow) 모드로 승차감 및 변속감, 연료 소비 효율을 최적화했다.

아울러 기아는 타스만의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등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도 확보했다.

타스만에 적용된 4WD 시스템은 샌드, 머드,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갖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로 차량을 최적 제어한다.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는 기본 모델 4WD 대비 28mm 높은 252mm의 최저 지상고를 갖췄으며 올-터레인(All-terrain) 타이어를 적용해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박소영 기자

